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제

2008 4 제182호(통권 401호)

#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호연지기가 넘치는 심성을 길러 줍시다 / 교육감

경남초등수학교육연구회 들여다보기 / 홍장성

장학특집 - 수련활동

전문가 초대석 / 공증제도에 관한 상식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장/학/갤/러/리



# 목련꽃 그늘 아래서



옷깃 얇아지고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에도 눈이 감겨  
가던 길 마다하고 봄 만나러  
돌아선 길

양지 바른 길섶  
진달래도  
아직은 어설픈 몸짓이고  
전정된 가지 반듯한 채  
성글게 꽃잎 연  
개나리도

카메라 렌즈 안에 들여 놓긴  
색이 얼어

포기하고 돌아서는 발길  
못내 아쉬워  
문득 눈 들어 본 하늘

거기  
아, 하늘거리는 꽃잎으로  
손짓하는 눈꽃 풍경

무리지어  
넉넉한 아름다움은  
고결해서 더 도도했던  
백목련  
편견을 떨어내고 있었다.

황급히 봄 열었던  
부산함에도  
쪽빛 들어 올 틈새 열어 두고  
또 다른 하늘 한 쪽까지 비워둔  
여유

그림 같은 백목련이  
마음에도 만개했다.

권두언 >>



# 호연지기가 넘치는



자연 속에서 태어난 인간은 본시부터 자연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세상과 잘 융합하는 호연지기는 삶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지식기반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웅대한 호연지기의 마음을 담아둔 관계로 자신의 가치를 바로 드러낼 기회를 많이 상실하였습니다. 인간 관계 중심의 도시 생활도 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약동하는 봄날에 맞추어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수련활동과 인성교육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호연지기를 길러주기 쉽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숨어있던 본성들이 유사한 환경에서 저절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잃기 쉬운 호연지기를 일상생활 속에서 길러주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 심성을 길러 줍시다

의 학교 생활에서도 호연지기가 가득 찬 학생들로 길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호연지기는 어릴 적부터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릴 적 배움은 평생의 자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당당한 자신감은 사회가 문명화 될수록 더욱 필요한 덕목이 될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아름다움은 의외로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생각부터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이 꽃 한 송이 피워내기 위해 겨우내 화분을 애지중지하듯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꾸며줄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가슴에 담은 호연지기가 가득 찬 사람으로 길러줍시다.  
감사합니다.

2008. 4. 1.

경상남도교육감 

# 2008년도 경남교육 기본 방향

## 교육 지표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



## 교육 시책

- 학생이 행복한 교육 -

-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 교육
-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 교육
- 지식강국 기반을 다지는 정보화 교육
-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 행정



## 역점 과제

-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 지도
-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 독서·논술교육 강화
- 창의성교육 강화
- 무상교육 지원 확대

1 장학갤러리	• 목련꽃 그늘 아래서 / 손남옥
2 권두언	• 호연지기가 넘치는 심성을 길러 줍시다 / 교육감
6 장학칼럼	• 국가 경쟁력과 평생교육 / 박화옥
8 기획시리즈	• 경남초등수학교육연구회 들여다보기 / 홍장성
12 장학특집 <b>수련활동</b>	•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창의성캠프 / 정수진
	• 몸 짱! 건강 짱! 올바른 식습관으로 / 하요
	• 야영수련활동을 통한 자아 발견 기회 제공 / 심재신
	• 토비와 함께하는 즐거운 산촌유학생활 / 이정구
24 전문가 초대석	• 공중제도에 관한 상식 / 김한규
	• 교원의 정신건강(4) / 이재경
28 수업기술 나누기	• 너희들 속에 빛나는 1%를 믿어주는 내가 될게 / 서경웅
	• Fun Activities를 통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 양영혜
	• 협동학습의 튼튼한 밑거름-모둠·학급 세우기 / 이현진
36 교육정보	• 아이들의 변화는 소통에서 출발한다 / 노미애
	• 아바타를 가르쳐 볼까? / 박상섭
43 현장포커스	• 문화유산의 향기를 맡으며 큰 꿈을 키우는 학교 / 오창호
47 참여마당	• 교원 마당 - 차를 나누는 마음으로 / 김차숙
	• 학부모 마당 - 지리산 자연휴양림을 다녀와서 / 배은숙
	- 국사봉을 다녀와서 / 조정현
	• 학생 마당 - 그리움 / 윤우상
	- 뒤늦은 깨달음 / 박아람
56 향기나는 서가	• 교육 50년 문권집 외 4편
59 교원지상갤러리	• 門(문) - 瑞氣集門(서기집문) / 한병철

장학월보는 교육공공체와 함께한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이메일:janghak@gnedu.net

2008년 4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임성택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심광보
- 편집위원 : 김만호 박재철 박성년 전미화
- 인쇄 : 문성인쇄사 (055)282-9922

# 국가 경쟁력과 평생교육



박 화 옥

경남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

현대사회의 급속한 과학 및 기술의 발달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었고 핵가족화 현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여가시간을 증대시켰으며, 자아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이 일생을 통하여 보람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평생교육 사회를 초래하였다.

1965년 랭그랑(Paul Lengrand)이 유네스코에서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평생을 통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제5공화국(1980) 개정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문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린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질적인 성장과 범국민적인 관심이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잡무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교직원도 있다. 학교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

수련 활동을 비롯한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학교를 개방하거나,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9조 2항에서는 ‘학교 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의무적인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학교도 동참하여 평생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본래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가 지니고 있는 교육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기에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교육은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므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공통된 관심 영역을 서로 통합하거나 협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익한 측면이 있다. 셋째, 접근의 용이성이다. 학교는 그 위치가 대부분 지역의 중심에 있으므로 성인대상의 평생교육 기관으로서도 접근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도 학교는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시설로의 개방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개인이나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일에 관심이 높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과 정보는 바로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과 계속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학교와 지역사회는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 지역주민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켜,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생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 경남초등수학교육연구회 들여다보기



홍 장 성

경남초등수학교육연구회장  
(창원 성주초등학교 교장)

경남초등수학교육연구회는 교직의 전문성 심화와 현장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1995년 3월 27일 마산 해운초등학교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창립하였다.

본 연구회는 수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교사들이 힘을 모아 이끌어온 전통이 있는 연구회로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은 물론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해 모든 회원들이 힘을 모아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초등 수학교육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 중에는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는 회원들이 많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종 수학 관련 행사와 수학과 수업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회에서는 특히 경남초등수학경시대회 개최, 자율 연수 및 세미나 주관, 경남교육청 지정 과제 수행, 수학 평가 문항 개발 보급 등의 활동으로 경남 초등 수학과 교육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 1. 13년째 경남초등수학경시대회 개최

연구회 창립 때부터 경남지역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수학꿈나무들의 수학 축제인 경남초등수학경시대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후원으로 2007년까지 13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는 학생들의 우열을 가려 등위를 매기기보다 순수하게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시험하고 수학을 통해 자기 성취감을 얻도록 하는데 있으며, 교사들에게는 초등수학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수학 영재의 조기 발굴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수학교과와 수학적 사고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학교 및 각 가정에서의 학습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효과에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회 운영상 학교별 예선을 통해 선발된 남 1명, 여 1명만 참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는 ‘수학축제’의 개최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회	날 짜	장 소	참가 학생
제1회	1995.10.03	마산 해운초	215명
제2회	1996.10.03	마산 해운초	162명
제3회	1997.11.15	마산 해운초	192명
제4회	1998.10.03	마산 합포초	212명
제5회	1999.10.03	마산 합포초	216명
제6회	2000.10.03	마산 해운초	220명
제7회	2001.10.07	마산 해운초	213명
제8회	2002.10.03	진해 덕산초	219명
제9회	2003.10.03	진해 덕산초	225명
제10회	2004.10.03	창원 평산초	294명
제11회	2005.10.03	창원 평산초	355명
제12회	2006.09.26	경남교육연수원	391명
제13회	2007.10.03	창원 성주초	374명
제14회	2008.10.03	창원 성주초	예정



제13회 경남초등수학경시대회



수학경시대회에 참석한 학부모연수

## 2.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연구 과제 수행

본 연구회는 지난해 도교육청으로부터 네번째 지정과제를 부여받아 ‘창의력을 기르는 수학교육의 방법 개선’의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여 수학교과교육에 대한 회원 및 일반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다. 회원들은 연구한 내용들을 교실 수업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교과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학과 학습방법 개선과 학습 태도면에 있어서 진일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회	지정 과제 주제
1995	창의력을 기르는 수학교육의 방법 개선
1996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수행평가 자료 개발
1998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수행평가 자료 개발
2008	수학적 사고력 촉진을 위한 평가 문항 개발



2007 교과교육 도지정과제 발표회

### 3. 세미나 및 자율연수 실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교사의 전문성과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연찬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수학에 대한 최신 이론이나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교육대학교 배종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교수, 우수 수학 교사들을 초청하거나 연수 강사로 위촉하여 세미나, 자율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초등수학교육연구회와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에게 전국단위 수학 연수회 참가를 안내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연도	연수 형태	연수 주제
1995	세미나	창의력을 기르는 수학교육
1996	세미나	수학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1997	자율연수	개인차에 대응하는 수학과 교수·학습 방안
1998	자율연수	수학과의 영역별 지도방법
1998	자율연수	수학과의 영역별 수행평가 제작과 현장 적용
2000	자율연수	교육과정의 이해
2002	세미나	초등수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2003	세미나	구체물 조작활동을 통한 수학적 사고력 신장
2004	특별강연	창의력 계발을위한 수학교육 교수·학습방법
2005	세미나	초등수학경시대회의 개선 방안
2007	자율연수	수학적 사고력 촉진을 위한 교수방법 개선



교수·학습방법 개선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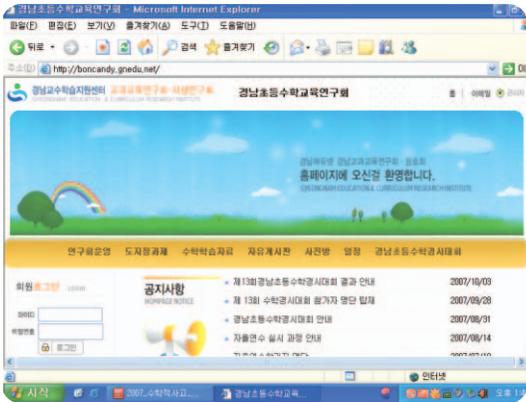
교실수업 개선 연수

### 4. 수학과 학습자료 개발·보급

1996년도와 1998년도에 도지정 연구 과제 수행 과정에서 개발된 3, 4, 6학년용 수행평가 자료는 회원들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경남초등수학경시대회 2회부터 12회까지 출제되었던 문제와 새로 개발한 자료를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문자와 식, 규칙성과 함수 등 6개 영역별로 총 350개의 평가 문항을 CD로 제작하여 2007년 교과교육 도지정 과제 연구보고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보급하였다. 그 밖에도 세미나 및 자율연수 자료도 인쇄 자료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 5. 연구회 홈페이지 활용

연구회 홈페이지는 수학기초대회 안내, 수학학습자료 탑재, 도지정 연구과제 운영 내용, 연구회 소식(사진방, 일정),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등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직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교사 및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초등수학교육연구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자료실 운영

## 6. 더 나은 연구회를 위하여

앞으로 연구회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여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언제나 열려있는 창'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년 10월 3일 실시예정인 수학기초대회에도 수학문제를 즐기고 좋아하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수학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수학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교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재미있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라는 생각을, 교사들에게는 수학과 수업을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창의성캠프



정수진

사천 남양초등학교 교사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은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볼 수 있고,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에 석양이 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며, 운동장에서는 1년 내내 시원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학교이다. 올해도 자연환경만큼이나 아름다운 아이들이 모여 배움의 터를 이루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무엇으로 행복하게 해줄까를 고민하며 또 한번 기대감에 부른다.

어렸을 적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보다는 놀러 다니는 것이 좋았다. 수련회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을 통해 끈끈한 우정을 다지고 또 새롭게 부딪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평소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치밀한 계획 하에 나름의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행해졌던 활동이지만 여하튼 그 경험들이 나의 학창시절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이유 중의 하나임은 변함이 없다.

야영수련활동은 이렇듯 학습의 장소를 교실 밖으로 옮겨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함으로써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보다 새로운 일에 대한 성취감과 도전 의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활동을 하는 동안만큼은 재미있게 웃을 수 있으며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행복해진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그것도 인성과 사회성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에서는 야영수련활동은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교육방법이다. 그래서 학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야영수련활동을 택했고 매년 하는 야영수련보다는 조금 색다른, 더 재미있는, 더 교육적인 활동을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성 함양'이라는 주제를 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창의성캠프>가 탄생되었고 캠프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창의적 능력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나. 학생들이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다. 학생들이 생활주변의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습관을 가지게 한다.

라.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창조하는 일이 즐거운 일임을 알게 한다.

애초부터 문화예술이라는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짧은 캠프기간동안에 창의성이 함양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단지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해내는 것이 얼마나 흥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며, 자신들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인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창의성 함양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해 줄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영수련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학생들에게 창의성함양에 대한 목표의식을 심어줄 것이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본 실천사례에서 활동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였다.

#### 가. 음악을 통한 창의성함양 프로그램 : 자기 PR노래 만들기, 난타한마당

- 기존에 알고 있던 노래의 음악적 요소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변형시켜 캠프 팀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노래를 만들어보았다. 또 전통악기의 음색과 특징을 살려 새로운 장단을 만들고, 이것을 조 구호에 입혀서 멋진 난타공연도 해 보았다. 이 활동은 음악적 요소를 찾기 위해 악의 음색과 분위기를 자세히 관찰하고 (민감성), 음악적 요소를 요리조리 변형시키며(융통성), 자신의 소개를 가사로 붙인 후(유창성) 이를 좀 더 매끄럽고 그럴싸하게 만드는(정교성) 과정이 필요하다.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방법을 경험했고, 팀원들에 대해 알게 되며 팀웍을 다질 수 있었다.

#### 나. 미술을 통한 창의성함양 프로그램 : 알록달록 티셔츠 만들기, 재활용품 탄생기

- 염색물감을 이용하여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티셔츠를 만들고 생활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팀별로 의자, 책상, 놀이집과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보았다. 여러 색깔의 물감들과 재료들이 학생들의 표현력을 자극함과 동시에 이것이 실생활에서 입고,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독창적인 사고와 그 사고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 다. 발명을 통한 창의성함양 프로그램 : 나도 발명가 코너활동

- 일반적으로 남다른 생각을 하는 과정을 창의성이라 하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든 결과가 곧 발명이다. 따라서 발명은 창의력의 산물이고 창의력은 발명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발명교육은 창의성교육의 대표적인 교육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학생들이 생각해낸 발명 계획들이 현실성 없고, 실용성이 없다 하더라도 발명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벗고, 생활 주변의 물건들을 민감하고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발명으로 이어짐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라. 놀이를 통한 창의성함양 프로그램 : 창의올림픽, 잠행, 다짐의 시간, 창의학습장

- 간단한 탐구활동, 놀이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발하고 엉뚱한 아이디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창의올림픽에는 눈감고 따라 그리기, 숲에서 보는 것처럼 기억하기, 퀴즈풀기, 육색사고모자놀이, 칠교놀이 등이 있었다. 잠행을 통하여 팀원간의 신뢰를 쌓고 모르는 것,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마음가짐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다짐의 시간은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을 다짐했던 시간이었으며, 창의학습장은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 마다 메모하고, 사고연습을 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모아둔 학습지였다. 이들 활동은 팀원과의 협력적 사고를 통하여 어렵고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주고 문제들을 민감하게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주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남겨주고 싶다. 야영수련활동은 새로운 경험을 하기에 좋은 기회였으며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속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시작한 야영수련활동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려는 끊임없는 도전을 시작하게끔 도와줬다면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행복하고 뜻 깊은 시간을 제공하는 데 반은 성공했으리라 믿는다.



# 몸 짱! 건강 짱! 올바른 식습관으로



허 요

거제고현중학교 교사

## 1. 목 표

- 가.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캠프를 통해 몸 짱 만들기를 실천한다.
- 나. 영양캠프를 통해 구성원간의 동료애를 돈독히 하고 비만을 구성원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다른 친구들과의 친선교류 및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라. 학부모교육과 영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 마. 참가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척정신과 자신감을 함양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한다.

## 2. 캠프활동 일정표

시간	1일차 (영양의 날)	2일차 (가족의 날)		시간	1일차(영양의 날)	2일차 (가족의 날)
06:00~	OO중학교 집결	기상 및 세면		15:00~	운동 처방 1 (출넘기 운동)	퇴소식 및 집으로 이동
07:00~		건강체조 및 산책		16:00~		
08:00~		아침식사 및 휴식		17:00~		
09:00~	캠프장으로 이동	운동처방 2	영양교육 2	18:00~	저녁식사 및 휴식	
10:00~	모듬별 활동 및 입소식	출넘기 다이어트	학부모교육	19:00~	역할극 및 장기 준비	
11:00~	영양교육 1	영양신문 만들기		20:00~	축제의 밤	
12:00~	점심식사 및 휴식	점심식사 및 휴식		21:00~	역할극 발표 / 캠프파이어	
13:00~		퇴소식 및 집으로 이동		22:00~	자신에게 편지 쓰기	
14:00~	행동수정치료			23:00~	취침	

### 3. 과정 활동

#### 가. 영양교육 1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양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한다.</li> <li>비만환자를 치료하는 기법을 알게 한다.</li> </ul>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을 위한 영양관리</li> <li>비만 환자들을 치료하는 영양법</li> </ul>
활동 모습	

#### 나. 행동수정 치료(미술 심리 치료)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심리요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한다.</li> <li>운동요법을 알게 한다.</li> <li>행동수정요법 실천 시 유의 사항을 알게 한다.</li> </ul>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심리요법 응용</li> <li>운동요법 활동</li> <li>행동수정요법 이론</li> </ul>
활동 모습	

#### 다. 운동 처방 1(줄넘기 운동)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단 줄넘기 운동을 즐겁게 실시한다.</li> <li>조별로 단체줄넘기 횟수를 많이 하게 한다.</li> </ul>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단 줄넘기 운동</li> <li>단체 줄넘기 운동</li> </ul>
활동 모습	

#### 라. 역할극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할극을 통하여 영양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한다.</li> <li>역할극을 통하여 비만의 위험을 알게 한다.</li> <li>역할극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알게 한다.</li> </ul>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할극을 통하여 영양에 관하여 알기</li> <li>역할극을 통하여 비만의 위험 표현하기</li> <li>역할극을 통하여 비만 환자들을 치료하는 행동요법 알기</li> </ul>
활동 모습	

마. 운동 처방 2(공동체 놀이)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놀이 활동을 즐겁게 실시한다.</li> <li>조별로 협동심을 발휘하게 한다.</li> </ul>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구공 릴레이</li> <li>막대기 넘어뜨리지 않기</li> </ul>
활동 모습	

바. 영양교육 2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한다.</li> <li>식사요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한다.</li> <li>비합리한 체중 조절을 실천하게 한다.</li> </ul>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을 위한 비만관리</li> <li>비만 환자들을 위한 식사요법</li> <li>비합리한 체중 조절</li> </ul>
활동 모습	

사. 줄넘기 다이어트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줄넘기 다이어트 운동을 즐겁게 실시한다.</li> <li>2인 줄넘기, 3인 줄넘기놀이를 정확하게 한다.</li> </ul>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줄넘기 다이어트</li> <li>2인 줄넘기(고향의 봄), 3인 줄넘기(비바 내사랑)</li> </ul>
활동 모습	

아. 학부모교육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양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한다.</li> <li>비만환자를 치료하는 기법을 알게 한다.</li> <li>비합리한 체중 조절 방법을 알게 한다.</li> </ul>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을 위한 영양관리</li> <li>비만 환자들을 위한 식사요법</li> <li>비합리한 체중 조절</li> </ul>
활동 모습	

5. 결 과

- 가. 영양캠프를 통해 몸 짱 만들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 나. 영양캠프를 통해 구성원간의 동료애를 돈독히 하고 비만을 구성원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 다. 다른 친구들과의 친선교류 및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라. 학부모의 영양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켰다.
- 마. 참가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척정신과 자신감을 함양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었다.

## 야영수련활동을 통한 자아 발견 기회 제공



심재신  
창원 토월고등학교 교사

자아는 기억·평가·계획하고 여러 방식으로 주변의 물리적·사회적 세계에 반응하며 그 속에서 행동하는 부분이다. 정신분석이론에서 자아는 지크문트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의 역동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제시한 3가지 요인의 하나로서, 이드·초자아와 공존한다. 프로이트의 용어에 따르면 자아(Ego: 라틴어로 '나'라는 뜻)는 성격을 실행하는 기능을 하며 이드와 초자아의 통합자이자 외부세계와 내부세계의 통합자이다. 자아는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행위 및 기대와 상상 속에 나타나는 미래의 행위와 관련된 개인적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행동에 지속성과 항상성을 부여한다. 신체 개념은 자신의 초기 경험이 중심이 되지만 자아는 성격이나 신체와 공존하는 것은 아니다. 발달된 자아는 특히 위험·질병 및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

- 브리태니커 백과> 사회과학> 심리학 에서발취 -

### <소감문>

제 00 기 0000고등학교 0학년 0반 이름 : 000

자연 속에 있는 남해학생야영수련원에 오니까, 여태까지 다닌 수련원 중 가장 나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준 곳인 것 같았다. 이번에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이 지어주신 밥과 반찬이 아닌 우리들의 손과 정성으로 밥을 만들어 먹고, 친구들과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서 정말 좋았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았다. 나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서 뭐하고 지내?' 이려고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지만, 친구들과 협동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비 오는 날 남자들끼리 축구, 바다에서 보트체험, 그리고 캠프파이어, 장기자랑 MC를 하면서 나의 불평, 불만은 자신감과 성취감 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이번 레크레이션과 캠프파이어의 MC를 하면서, 처음으로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또 남들

앞에서 서서 말을 자신있게, 조리있게, 재미있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처음에 레크레이션 MC를 하라고 했을 때, '난 이런 거 해 본 적 없어서 엄청 웃음거리가 될 텐데, 왜 하필 '나일까? 다른 사람을 시키면 안 될까?' 그러면서 나 자신의 숨은 재능을 숨기려고만 했던 내가 지금 와서 보니 그 때 나는 바보 같았고 어리석었던 것 같았다.

'I'm not what I was'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여러 극기체험을 함으로써 서울에서 얻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얻어서 2박 3일을 거쳐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캠프파이어에서 담임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여태까지 친구나 가족과 노래를 불렀지만, 선생님과 무대에서 함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제 함께 노래를 부름으로써 선생님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지기도 했고, 또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었다.

남해학생야영수련원. 나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바꾼 곳이다. 이곳을 오게 해 주신 우리 학교 선생님과 수련원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내가 힘들 때, 부추겨 주고, 도와준 내 든든한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제 앞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커서 꼭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남해학생야영수련원의 좋은 추억을 머리와 가슴 속 깊은 곳에 가장 좋았던 추억중 하나로 남길 것이다.

## 자아 [自我, ego]

정신분석이론에서 '자기' 또는 '나'로서 경험되며 지각을 통해 외부세계와 접촉하는 인간성격의 일부분.

### <맺음말>

야영수련에 임하는 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의식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일탈의 시간으로 착각하고 마음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입소하지만 과정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 소속에서 무엇을 하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학생들은 변화를 한다.

지난 1년간 남해학생야영수련원에서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야영수련 활동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소질과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자기 자신의 꿈과 이상을 키우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는 면들도 엿보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 무엇인지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은 지식위주의 주입식학습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자아를 발견 할 너무나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은 나라의 꿈이요 미래이다. 우리가 청소년을 소중히 가꾸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나라의 장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인생을 좌우할 품성을 기르고 자신의 소질을 계발할 중요한 시기이므로 다양한 체험활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아를 발견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절실하게 요망된다고 하겠다.

위의 학생에게도 야영수련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해양활동 - 보트 차전놀이



갯후리 - 전통어로체험



공동체 활동 - 전차놀이



해양활동 - 보트 레프팅

## 토비와 함께하는 즐거운 산촌유학생활

이 정 구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교학과장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21세기 고도의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에 몰두하게 되고, 그런 만큼 사람들은 자연과 점점 멀어져서 컴퓨터나 기계와 더욱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요즘의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자연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품성을 기르고, 산촌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는 활동과 우리의 전통을 익히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서 유년시절의 아름다운 꿈을 키우고 자연과 더불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하여 바른 심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은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지식과 이해중심의 교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아동들의 지적 정서적인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체험 중심의 경험교육이라기보다는 이해중심의 지식교육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식중심 교육의 반성을 바탕으로 산촌유학교육원에서는 교육의 개념을 다양화하여 교육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문화놀이라는 개념과 실제경험을 통하여 지식을 만들어 가는 구성주의 교육을 도입하여 창의력, 사고력, 인내심, 협동심, 탐구심, 아름다운 품성을 기르는 조화로운 심성계발과 환경보전의 의식을 기르며, 전통문화의 계승 등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려 합니다.

맑고 푸른 자연환경과 풍부한 지역문화를 학습 환경으로 다양한 산촌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개성과 창의성을 길러 미래사회 주인공으로서의 품성을



농사 짓기 체험활동 모습

\* 토비 : 산촌유학교의 마스코트

기르기 위해 설립된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은 이곳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는 곳입니다.

## 운영 프로그램

### 1. 학사 운영

- ◆ 운영 기간 : 연간 27기, 3박 4일의 교육과정 운영
- ◆ 대 상 : 경상남도내의 초등학교 5학년
- ◆ 편 성 : 5학년 120명으로 편성 운영

### 2.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

활동명	영역	활동내용	시간 배당
체험 활동	산촌생활체험	• 별자리 관찰 • 숲 체험활동 • 봄나물 뜯기 • 밤줍기 • 감국차 만들기 등	5
	농사 체험	• 농사 짓기	4
예절 심성 활동	자치 활동	• 답입과의 시간 • 친교의 시간 • 산촌문화 발표회 • 우정 나누기 • 청소활동	6
	전통문화 계승	• 토우만들기 • 전통음악 • 전통음식 • 전통공예 • 전래놀이 • 전통예절	6
	교육 활동	• 활동과정 및 생활 안내 • 만남의 시간 • 마음 다듬기 I • 마음 다듬기 II • 입소식 • 수료식 • 아침 활동 • 촛불 의식 • 명상의 시간 • 신비탐 한마당 • 감상문 쓰기 • 안전 대피훈련	12
지역 문화 탐구 활동	조사·탐구 활동	• 향교·약초시험장 • 연암 박지원 선생 사적비 • 윤씨고가 • 광풍루 • 구로정	6
	발표 활동	• 산촌 문화 발표회 - 선택 체험학습 활동 결과 발표, 탐사활동 결과 발표	1
계			40

경상남도 산촌유학교육원은 도내 5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체험활동, 예절 심성 활동, 지역문화 탐사활동 등 3개 영역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숲속에서 명상이나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자연 속에 가득한 보물을 찾는 숲 체험 활동이나 들로 나가 봄나물을 뜯으며 자연의 혜택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기도 하고, 전통예절과 다례, 도예, 전통음악, 전통공예, 전통음식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배우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전통 계승활동과 들판에 직접 나가 농사짓기를 체험하며 땅과 땀의 소중함을 몸

으로 직접 체험하며 신토불이의 정신을 키우는 곳입니다.

산촌유학교육원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자랑할만한 프로그램으로는 공동체 놀이를 통하여 조상들의 슬기를 배우는 '신바람 한마당'과 문화 탐구활동과 하이킹, 추적활동, 집단 의사결정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만든 '지역문화 탐사활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탐사활동은 약 6시간에 걸쳐 6개의 코스를 아동들이 학급별로 직접 지도를 보며 함양 안의면 일대 약 14km를 탐사하고 공부하는 활동인데 인내심과 개척정신, 협동심과 탐구심을 길러주기에 충분한 프로그램입니다.

산촌유학교육원 운동장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흔들 다리를 설치하고, 운동장 곳곳에는 우리 민속놀이 자료를 놓아두어 언제든지 이용하고 싶은 학생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한 자락에는 야생화 동산이 곱게 자리 잡고 있으며, 야생화 동산 샛길에는 박, 호박, 수세미, 오이 등의 텃밭식물을 심어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 호박이나 박이 주렁주렁 달려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그마한 사육장에는 공작, 금계, 칠면조, 토끼 등이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조성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것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였고, 그 옆에는 토종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연못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입소식부터 퇴소식까지의 전 과정이 수련생들에게 아름다운 심성을 계발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수련 과정은 강제성이나 통제를 배제하고 고도의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아동 스스로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인내심, 협동심, 탐구심, 사회성, 양보심, 공동체 의식 등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유학교육원은 이곳이 아니면 체험하기 힘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수련생들이 신토불이의 정신과 조상의 지혜를 배우고 익히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맑고 슬기롭게, 푸르고 정답게'라는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의 원훈과 같이 경남 어린이의 산 교육장으로 역할을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바람 한마당



탐사 활동



전/문/가/초/대/석



김 현 규  
법무법인 서 경 변호사

## 공증제도에 관한 상식



우리나라에서 공증사무를 담당 처리하는 사람을 공증인이라고 부르고, 공증업무집행자로서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공증인 이외에도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과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법원서기, 집행관, 검사, 영사, 부영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공증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증제도에 관한 상식을 요약 소개합니다.

### 1.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어떻게 편리하고 유리한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금전을 주고받기로 서로 계약을 하였다가 약정한 시기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고 위약을 하였을 때 재판을 하여 금전을 받으려면 오랜 시일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때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편을 없애고, 분쟁을 미리 막아서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약정기일에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즉시 강제집행(압류, 경매, 전부, 추심, 배당)을 하여 금전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유익한 제도입니다.

또 채권양도증서나 최고통지서 등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작성 날자가 증명되고 차용증서, 약속어음을 받아두면 배당요구에 유리합니다.

## 2.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편리하고 유리한 계약 종류

1)약속어음 2)물품 외상 거래대금 3)금전 소비대차(차용)계약 4)동산 양도담보 금전대차계약(가재도구, 기계, 선박, 영업시설, 농작물 등 동산을 담보로 하고 금전 거래할 때) 5)월부, 할부 판매대금(전자제품, 기계, 자동차, 기타) 6)그 외 동업계약, 공사도급계약,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약정 7)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각종 신용대출

## 3. 유언 공증을 하여 두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함

유언자 이외에 증인 2명(유언자와 일가친척이 아닌 성년)이 필요합니다.

## 4. 사문서를 공증하면 유리하나 증거가 됨

1)매매, 임대차, 동업, 도급 등 각종 계약서 2)각종 각서 3)합의서 4)보증서 5)확인서 6)초청장 7)진술서 8)보관증 9)위임장 10)번역문 등

위 각종 문서는 개인이 작성한 문서이므로 미리 공증을 하여두면 후일 자기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든가, 사기나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거나,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고, 분쟁을 일으키는 소지를 없애 절대 유리한 법적 증거력을 보유하고, 그 문서의 성립과 내용의 진정함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관 의사록은 반드시 법인 소재지의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등기가 됩니다.

## 5. 공증을 받으려 할 때 준비물

본인이 직접 공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소지해야 하고, 대리인이 공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공증용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 또는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도장을 소지해야 합니다.

그 밖에 구비 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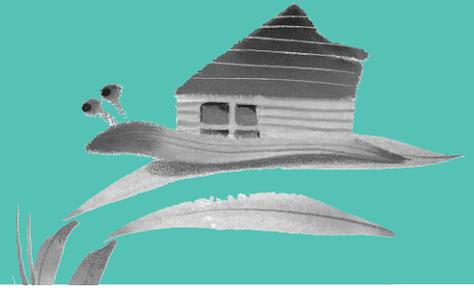
전/문/가/초/대/석



이 재 경

밀양 단산초등학교 교사 / 상담학 박사

## 교원의 정신건강(4)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외부의 환경적 영향을 받으면서 내적 욕구는 조절 및 통제되어 실현된다. 인간의 내적 욕구와 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지각(Perception)이다.

이러한 대인지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적 영향을 받는다. 대물지각은 정확하고 매우 객관적인 측정과 예측이 가능하며 종결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인관계(학생-학생, 학생-교사, 교사-교사, 교사-학부모)를 통하여 발생하는 대인지각에서는 서로 관계한 대상들이 변화하는 존재이므로 일방적이며 단편적인 지각이 어렵다. 둘째, 지각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어렵다. 대인지각에서 이루어지는 지각의 내용들은 주로 인간의 심리적 측면의 요소들일 경우가 많다. 외모의 특성이나 언어적 행동은 지각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입증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로 내면 세계의 감정, 사고, 가치관, 견해 등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지각한 결과에 대해서 지각자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교직원 서로간에 자기노출을 통하여 지각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타인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셋째, 지각자와 피지각자의 동시적 역할이 존재한다. 대물지각의 지각 방향은 일방적이다. 그러나 대인지각은 내가 지각을 하면서 동시에 지각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지각의 순환성이 있다.

정리하자면, 사물을 보고 외적인 특성과 특징을 파악할 경우에도 자신만의 지각들로 인하여 많은 오해와 왜곡을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더욱 변화무쌍한 인간관계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내·외적 요소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각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 대인관계를 맺은 타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의미있고 정확하고 현실적

인 지각을 통한 이해와 분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합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나의 처한 환경이나 내적 상태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지각하여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함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현상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여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의 상상 속에서 받아들인 것을 사실인양 스스로 설득하면서 참인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가 지금-여기에서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참모습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방식으로 받아들인 낯선 이방인과 대화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 가면 쓴 모습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극중 배역을 잘 나타내는 배우에 대해서 그의 실제생활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감을 나누며 괴로움과 좌절을 나누고 상처를 입힌 상대방의 참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나에게 부정적이고 상처와 고통을 주는 상대방의 실체를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지각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여 지각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지금은 당장 문제가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는 겉으로는 회복되는 것이지만 속은 더욱 깊고 강도가 강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것이다.

학교환경의 모든 인간관계에는 나-너가 존재하는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나와 너는 서로 다르다는 점들을 인정해야 한다. 학교환경 속 상대방의 가치, 사고, 생각, 감정, 행동 등 상대방 삶의 모든 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기준에 벗어나거나 합당치 못하다고 내 중심으로 내 틀에 맞게 조작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 틀에 맞추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 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을 뿐이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타인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학교환경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 형성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간혹 관계가 어느 정도는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가 종결될 것이 분명하다.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의 지각과 해석 및 이해만이 옳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오류와 편견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지각이 항상 타당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타인이 나에게 주는 충고나 비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거부하기 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적극적 수용이 필요하다. 또한 타인도 절대적으로 타당하고 바르다고 할 수 없으나 타인은 제 3자의 관점에서 감정의 개입없이 보다 조망적 태도로 지각한 후 해석할 확률이 높다. 우리에게 지각의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 학교환경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의미 있게 진실한 관계를 형성한 또 다른 나 자신인 타인을 통해서이다.

yjvision@hanmail.net



## 수·업·기·술·나·누·기

### 너희들 속에 빛나는 1%를 믿어주는 내가 될게



서 경 응

함안 가야초등학교 교사

3월이 가고 4월이 왔다.

해마다 새로운 사람과 환경을 마주하는 교사들에게 시작은 그 어떤 직업보다 첫 시작의 새로움을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만의 교육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리라, 생각하며 모르는 것까지 가르치려던 20대의 열정은 이제 내 식대로 가르친다’는 40대가 되었다.

20여년의 경력이 있으니 누구에게든 내세울 수 있는 교사로서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란 건 명백한 선입견.

전문직이란 기대의 잣대로 교사의 직무, 특히 수업을 들이댄다면 늘 만족보다는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사의 무기라는 수업!

매일 매시간 되풀이되는 우리들만의 작업에서 어느 사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전형적 교사 스타일(굳은 표정, 딱딱한 언어, 지시적 전달, 개성무시, 빨리빨리 해결...)로 굳어져 처음의 순수한 결심은 사라지고 아이들의 눈빛은 시들어 감을 느낀 적은 없는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 연구된 여러 가지 교수법을 배우고 익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겠지만 그것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교사가 늘 자기 교실에서 수업연구를 펼칠 수는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해야 할 좋은 수업의 유지를 위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나는 그런 의문점을 아동과의 친밀감 형성이란 과정을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친밀감을 형성을 통하여 교사의 숙제인 좋은 수업을 일상의 일처럼 자연스럽게 펼치기 위해 나를 터득한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 가르침보다 나눔을.

우리는 아이들이 나보다 무언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잘 전제한다. 그런 생각으로 늘 가르치려고만 든다. 늘 가르치려고만 하면 아이들과 함께 느끼거나 나눌 것이 없어진다. 아이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 나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찾아보자.

## 제대로 믿어주기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부분 건너뛰기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짧은 순간이나마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그들의 이야기에 고개 끄덕여주자. 간혹 무너진 믿음에 쓴웃음 지을때도 있지만, 자성예언을 실천해보자. 효과는 분명 있었다. '너, 정말 대단한데' '너라면 해결할 수 있을거야'. 마음 깊은 곳에서 불신의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 아이들의 있는 그대로를 사심없이 믿어보자.

## 새로운 것에 대해 눈뜨기

우물 속에 있으면 우물 크기의 하늘만 보인다. 우물 밖으로 자주 나가 다른 공기, 다른 풍경을 먼저 접하고 전하는 이가 되자. 아이들에게 무지개 너머 세상을 알려줄 수 있는 더 큰 시야를 우리가 먼저 확보하자.

## 교실에서 희망찾기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가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체제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 하지만 무너진 교단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발생하였고 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왔던 것 같다. 이미 교사들의 마음속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해결점은 바로 교실에서 희망 찾기.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시간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면 그 수업은 신성한 것이고 좋은 수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 날 우리가 바라는 당당한 전문직 교사의 모습이 될 것이라 믿으며 오늘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하루를 맞는다.

교사는 영원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중지될지 결코 우리는 말할 수 없다.

-헨리 아담스-



양 영 혜

김해 임호중학교 교사

## Fun Activities를 통한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사회적으로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키고 있는 요즘,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영어교사들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리고 있을 줄 안다. 영어를 Native Speaker처럼 완벽하게 구사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우리 영어교사 마음 안에 있는 것 같다.

재미있는 영어수업 아이디어를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보자. TV를 보다가도 재미있는 게임이 나오면 수업에 적용해보고, 학생들에게 흥미유발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위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보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이다.

캐나다 현지에서의 참관 수업은 나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을 변화시켰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위해서 모든 학습방법의 구성은 Fun Activity, Discussion and Presentation 순서로 바뀌었다. Fun Activity를 위해서 재미있는 게임이나 인터넷 활용, ENIE, 가점주기, 보상하기 등을 이용하고, 말하기가 유창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유도하기 위해 본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고, 그림의 내용을 인터뷰하여 쓰서 발표하는 식의 Discussion and Presentation 수업을 진행하였다.

영어몰입교육, 영어교사 연수 Pass/Fail제 하면서 영어교사가 엄청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사회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영어교사가 변해야한다는 사실을 몸소 겪으면서 내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수업의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한다.

### Fun Activities for Learning and Motivation

Case 1) 종이접기를 통한 명령문 익히기(through The Kids Times)

Folding Paper into various figures(The Tumbler)

- ① Fold it up.(위로 접으세요)
- ② Fold both sides inwards.(양쪽을 안으로 접으세요)
- ③ Fold it towards the directions of the arrows.(화살표 방향으로 접으세요)
- ④ Fold it down.(아래로 접으세요)

Case 2) 생각 풍선으로 창의력 사고 키우기(through the Internet)

Fill in the thought bubbles

- ◆ There are correct answers for this section.
- ◆ Just use your imagination and have fun.
- ◆ You can make use of cartoons, a tail of two kitties, Garfield.

Case 3)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기

Making a survey, interviewing a partner and presenting about their partner.

- ◆ Talking about some pictures and key words.
- ◆ Students ask and answer their favorites in pairs.
- ◆ Present his or her partner's favorites out in front of the class.

Case 4)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하여 발표하기

Drawing a picture and Presentation

- ◆ Students draw a picture listening the contents.
- ◆ Each students debates about the picture in a group activity.
- ◆ Teachers should monitor pronunciation and understanding during their group activity circulating around the room.
- ◆ Each student presents his or her summary showing the picture out in front of the class.

Case 5) 게임으로 피드백하기

Feedback on the Game

- ◆ Have a game with O/X quiz to confirm that students have completed the task successfully.



## 수·업·기·술·나·누·기

### 협동학습의 튼튼한 밑거름- 모둠·학급 세우기



이 현 진

창원 토월초등학교 교사

협동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교실 수업에 적용해보려 했던 많은 선생님들이 협동학습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경쟁적이고 무질서해지는 교실을 발견해 좌절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협동학습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잘 맞물려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 비로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1월호-협동학습 이론 참고). 그 중 모둠·학급 세우기는 협동적인 생활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급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비옥한 토양에서 훌륭한 싹과 열매를 가꿀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모둠·학급 세우기는 무엇일까? 쉽게 말한다면 문자 그대로 ‘모둠(team)과, 학급(class)을 세워나가는(building) 과정’이다.

모둠 세우기(teambuilding)	학급 세우기(classbuilding)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네 명의 학생이 하나의 협력하는 모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다른 환경과 경험을 가진 개인들로 가득 찬 학급이 적극적인 학습 공동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 1. 모둠·학급 세우기를 하는 이유

##### ① 학습을 위한 환경 조성하기

학생들을 단순히 모둠으로 모아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나 기술을 가르쳐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② 미래를 위한 준비

극도로 다양성을 띤 미래에 살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해낼 수 있는 모둠·학급 세우기 기술을 익혀야 한다.

##### ③ 장벽 깨기

서로를 아는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장벽을 깨고 그의 가치를 알아가게 된다.

## 2. 모둠·학급 세우기의 목표

모둠·학급 세우기는 아래 다섯 가지의 목표를 가진다. 이 목표들에 부합하는 활동이 바로 모둠·학급 세우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단순한 놀이와 차이점이 될 수도 있다.

목 표	내 용	관계있는 구조
서로에 대해 알기	• 서로에 대해 잘 알 때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모듬인터뷰 꼬마출석부 친구 찾기 등
정체성 가지기	• 우리 모듬, 학급만의 특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정체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하얀거짓말 찾기 행운의 숫자 모듬모자 등
상호지원 (서로 도와주기)	•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실천하게 하는 활동으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상호의존이 일어난다.	풍선치기 모양 만들기 장남애벌레 마음 맞추기 등
차이점 인정	• 서로의 다양성,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깊이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수직선 모듬과제 등
시너지 개발	• 시너지란, 개별적으로 일할 때 보다 협동적으로 일했을 때 개인의 결과를 합한 것 이상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말한다. 즉, 협동심이 발휘될 때 기본 에너지 이상으로 증폭되는 에너지이다.	낙서의 예술 모듬문장 등

## 3. 다양한 모듬·학급 세우기의 예

### ◆ 하얀 거짓말 찾기

- 두개의 진실, 한 개의 거짓된 문장 중에서 거짓을 찾아내는 다양한 활동이다.

- ①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의 말을 두 가지 진실 문장과 하나의 거짓 문장으로 각자 준비한다.
- ② 세 문장을 모두미들에게 들려준다.
- ③ 다른 모두미들은 의논하여 거짓 문장이 무엇인지 알아맞힌다.

### ◆ 행운의 숫자

- 모듬 나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정체성을 가진다. 만약 모듬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운의 숫자를 맞춘다면 그 성취감으로 인해 정체성은 더욱 굳어진다.

\* 하나의 숫자를 반복할 때

- ① 교사 : “행운의 숫자 7! 하나 둘 셋!”
- ② 학생 : 모둠 구성원이 자신의 한 손의 손가락 중 몇 개를 동시에 낸다.  
행운의 숫자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 다른 숫자를 한번에 맞출 때

- ① 교사 : “행운의 숫자 8! 하나 둘 셋!”
- ② 교사 : “행운의 숫자 10! 하나 둘 셋!”
- ③ 학생 : 한번 만에 행운의 숫자를 맞출 수 있게 한다.  
교사는 5→4→0→20 순으로 행운의 숫자를 불러, 모두 손가락을 내지 않을 때와 손가락을 모두 폈을 때 하나 되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 ◆ 풍선치기

- 협동적인 활동과 게임으로 긍정적인 상호의존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 ① 풍선 불어 모퉁이를 적는다.
- ② 모퉁끼리 앉아서 자유롭게 친다.
- ③ 모퉁안에서 번호순으로 돌아가며 친다.
- ④ 모퉁 구성원끼리 손을 잡고 잡은 손으로 친다.
- ⑤ 일어서서 손을 잡고 머리로 친다.
- ⑥ 모퉁간 돌리며 친다.

\* 놀이 한 뒤 풍선에 모퉁 그림을 그리고 교실 벽에 붙여둔다.

(모퉁 캐릭터를 그리거나 돌아가며 한마디씩 적기)

#### 4. 모둠·학급 세우기의 효과

모둠·학급 세우기를 많이 할수록 학급 분위기가 좋아짐은 물론 학업성취도도 향상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학생들은 웃고 즐기는 활동을 통해 안에 있는 것을 발산하는 해방감을 맛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교과수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학급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와 관련된 교사와 수학, 과학 또는 국어시간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일 반화 이론도 그러한 효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모둠·학급 세우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법,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고 다양해지는 사회역할을 준비할 수 있으며, 교사로서는 학급을 원만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시간이 덜 들고 학습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느낄 수 있다.

## 5. 모듈·학급 세우기 활동의 유의점

그러나 모듈·학급 세우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 다섯 가지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이것이 곧 레크레이션, 놀이와의 차이점이다.

둘째, 1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초기에는 더욱 자주 한다.

셋째, 모듈 세우기가 모듈간 경쟁이 될 수 있으므로 학급세우기와 함께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 모두가 생각하는 수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일본 와카바 소학교의 수학 교사는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각하지 않게 한 나의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협동학습에 대한 실패감이 느껴질 때, 오히려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는지 돌아보고, 그 토양에 든든한 밑거름을 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겠다.

“나는 모듈세우기, 학급세우기가 협동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스펜서 케이건-

# 아이들의 변화는 소통에서 출발한다.



창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무국장 노미애

우리에게는 누구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하지 못한 채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무력감과 좌절감은 마치 내 안의 주인처럼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러한 마음이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때리기, 욕하기, 대들기, 개기기, 보복하기 등)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공격하는 방식(과도한 자기비하, 대인기피, 자해 등)이다. 전자의 경우는 쉽게 눈에 띄지만 후자의 경우는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잘 모르게 된다.

본 고에서는 전자의 특성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자 그들과 1박 2일간 나누었던 생활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난 겨울방학 직전에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을 보여 본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8명과 학교에서 따로 추천을 받은 아이 7명과 함께 이틀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캠프를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체험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전체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틀만 구성하고 나머지는 아이들과 함께 채워 갈 영역으로 남겨 두었다. 식사도 함께 하는 활동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어 우리가 직접 조리해서 먹도록 준비하였다.

출발날 아침, 15명의 아이들은 시간에 늦지 않게 모두 도착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상담실로는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상담선생님이 여러 번 권유하고 설득하자 아이들은 마지못해 들어왔다. 처음 참여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서로 인사라도 나누며 ‘잘해보자’ 파이팅이라도 외치고 싶었다. 그런데 아이들 모습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다소 머쓱한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20명이 먹을 먹거리, 취사도구를 챙기다보니 짐이 많았다. 그래서 출발하는 아이들에게

“애들아! 짐 하나씩만 들고 가자” 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아이들의 반응이 나왔다.

“그럴 줄 알았다. 결국 짐들고 가자고 우리 불렀네. 그럼 그렇지”

“싫어요. 우리가 짐꾼이에요?” 하며 버스로 가버린다. 그중 두 명의 아이는 짐수레에 실린 짐을 밀고 어느 만큼 가더니, 또 그냥 가버린다. 순간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박 2일을 무사히 마치는 일이다. 아이들과 감정적 힘겨루기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현재의 내 감정(화나고, 실망되고 무안하고 등)에 에너지를 소비할 수가 없었다. 내 감정보다는 아이들이 행동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듣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나의 모든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었다. ‘아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이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답은 분명했다.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

이 상태로는 소통 할 수가 없었고 진심이 만날 수 없음을 느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의 목표를 아이들이 존중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 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을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율성을 부여한다 해도 아이들에게는 억지로 하는 강요된 것 이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 소통되는게 더 급선무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협조는 구하되, 싫다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정했다. 즉 아이의 ‘안하고 싶은 마음 존중하기’를 시도했다. 우리는 짐을 옮기고 분주하게 왔다갔다 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네끼리 노는 것도 아니고, 차안에서 우리가 분주히 다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신경이 쓰였다. ‘왜 저처럼까, 우리에게 미안해졌나? 그러면 도와주면 되지. 왜 저렇게 불편하게 있을까? 혹시 도와주면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잘 보일라고 아부하는 것처럼 느낄까봐 신경이 쓰이나?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멍하니 있을까’ 혼자서 여러 상상을 했다. 물론 확인해 보면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있었는데요’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들의 그 표현 밑에는 미안함이 있다는 걸 안다.

우리가 간 곳은 거창에 있는 자연휴양림이었다. 아이들의 취향과는 정말 맞지 않을 조용하고 차분한 곳이다. 가는 동안 나는 또 한번 조바심을 내어야 했다. ‘촌구석에 처박아 놓았다고 아이들이 화내면 어찌지?’ 그런데 기사님께서서는 실수로 우리가 내려야 하는 IC를 더 지나버렸다. 자연환경으로 뒤덮인 주변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었다. 차를 돌리려니 다음 IC에서 내려 지방도를 타고 다시 내려와야 했다. 산과 논밭만 있는 주변환경 속을 달리고 있자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우리를 완전히 촌구석에 처박은구나’ 한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의 동조가 별로 없다. 그리고 말았다.

점심시간. 우리가 도착한 식당은 산중턱에 있었다. 주인의 정성은 느껴졌지만 아이들의 입맛에는 영 아닌 듯 하다.

“선생님 반찬이 이게 다예요. 와 진짜 심하다. 먹을 게 없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야. 좀 실망이다 그지”

“이거 얼마예요?”

“짜지 않은데 먼 곳까지 올려다보니 재료비가 비쌌나 보다.” 했다.

“야 고마 오뎅하고 묵어라. 샘 반찬 더 달라해도 되지예”

우리의 점심은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가는 것으로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숙소로 가는 일은 눈이 녹지 않아 제법 빙판길이었다. 우리는 다시 짐을 내려야 했다. 아이들은 돌아보지 않고 숙소로 들어간다. 그 중 철이(가명)가

“샘 도와주께예?”

“그러면 고맙지” 철이가 든 물건은 컵라면 한박스..... “헹~ 겨우...” 우리는 다같이 웃었다 또다시 와서는 이제는 장난스럽게 고기 구울 철망 하나를 들고는 “아이 무거워”하면서 업살을 부린다. 어느새 출발할 때 열려되고 긴장되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진다. 아이들은 눈싸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자유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예정한 프로그램(심리극)이 진행되었다. 아이들 서로가 어색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도자의 권유에 못이긴 척 따라주는 아이들이 생기지만 매끄럽지는 않다. 아이들은 들락날락하고 심리극에 몰입할 분위기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은 판짓을 하면서도 여전히 함께 있다.

저녁식사 준비시간. 저녁에는 숯불구이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바베큐통을 정리하는데 명수와 철수가 와서 도와주겠다고 한다. 불을 지피고 숯불바베큐 파티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서로 달라며 아우성이다.

“선생님! 이 새우 익으면 내꺼예요.

“선생님 나는 왜 안취요. 애는 고기 많아요 내 주세요”

아이들은 마치 엄마한테 보채는 아이처럼 아우성이다. 저녁식사가 마무리되고 저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싫다하면서도 모이자 하면 모이는게 신기하고 기특했다. 한 아이가 주인공으로 어렵게 나섰다. 감정을 내놓는 일이 주인공 뿐만이 아니라 그 기분에 휩싸이면 자기를 주체하지 못할까봐 그런지 낮보다도 더욱 노골적인 방해가 시작되었다.

“야! 니 뭐하노. 내 캄프왔다 심리극인가 뭔가 이상한거 한다”로 시작한 전화는 목소리가 커져가며 계속되었고, 또다른 주인공의 친구인 인수(가명)는 “내가 있잖아”하면서 주인공이 감정에 몰입되지 못하도록 엉뚱한 이야기로 방해를 한다. 이렇게 진행된 프로그램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이 났다.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보내면 되었다. 어떤 아이들은 노래방에서 노래부르고 어떤 아이들은 통화하고, 또다른 아이들은 이불에 누워 있고 제각각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밤을 꼬박 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의를 했다. 강사선생님께도 이번 활동에서 갖는 목표를 이야기하고 이후의 일정을 논의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분위기를 지켜보며 아이들이 행동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게 뭘까를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 노래소리가 잦아들고 잠을 자겠다는 아이들이 생겼다. 그런데 3명의 아이들이 강사님방에서 자면 안된다고 한다. 얌전히 잘테니까 같이 자게 해달란다. 강사선생님(강사님은 남자)도 괜찮다고 했다. 12시 정도 되었을까 아이들의 방에는 불이 꺼졌고 조용해졌다. 순찰(?)을 나갔던 선생님이 들어와서는

“국장님! 아이들이 불 꺼 놓고 국장님 오셔서 귀신이야기 해달래요”한다. 아이들의 평소 모습(대들고 개기고, 반항하는)과 비교했을 때 무척 유치하고 엉뚱했다.

잠 못잘 준비를 한 우리로서는 할 일이 없어졌다. 한가한 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궁금증으로 되짚어졌다. 아이들은 어른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강사님과 자겠다고 한다. 심리극을 할 때도 어색하고 싫으면 안들어 오고 숨어 있을수도 있는데.. 방해는 하지만 늘 그 자리에 함께 있다. 자기들끼리 떠들고 놀면 되는데 아이들은 짐 나르는 우리를 멍하니 지켜보았다. 크게 불평하고 대드는 아이가 없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특히 아무도 술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휴게실에서 살 수도 있었을텐데... 술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없었다. ‘아이들에게 무슨 마음이 올라왔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우리도 잠이 들었다.

다음날 우리는 9시 30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침을 먹기 위해 아이들을 깨웠다. 일어나지 않는 아이 몇몇은 그냥 두었다. 식사를 마친 한 아이가

“선생님! 9시 30분까지는 자도 되지요?”

“그럼 9시 30분까지는 니 시간이니까.” 그때가 9시 10분쯤 되었다.

“알았어요 깨우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9시 30분에 프로그램 진행 할거니까 얼마든지” 그러면서 우리 지도자들은 이불을 개며 아이들 방을 정리했다. 내가 옆에 있던 동철이에게

“밀감을 왜 안먹었노?”

“껍질까지가 귀찮아서요.”

“어이구 이놈애 그게 귀찮으면 숨은 어찌 쉬냐, 까 주까?” 하며 밀감을 까주니까 이제는 입에 넣어 달라며 입을 벌린다. 꼭 내가 동철이 엄마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다 싶은데, 이를 지켜보던 경태가 못마땅한 듯 “야 너겨 엄마가”한다. 그래서 내가 웃으며 “응 내가 동철이 엄마 아이가”하며 밀감을 먹을 만큼의 크기로 떼어서 입에 넣어주었다. 동철이 엄마는 동철이가 4살 때 집을 나갔다. 그래서 외로움이 많은 아이

다. 그때 용준이가 “어이, 노미애!”하며 부른다. 그래서 내가 “예, 선생님” 하고 대답을 했더니 건들건들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잘 해!”한다. 이 용준이는 우리 센터에서도 내가 없으면 자기가 국장이라며 내 행세를 하는 아이다. 이런 역할극을 해 보면 아이들에게 비친 어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버릇없음으로 보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느껴보는 시간으로 보낸다. 그 날 이 행동은 나에게서 그다지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경태가 기가 차다는 듯 “우리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다”하며 방을 나가버린다.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했다. ‘해도해도 너무한’, ‘싸가지 없는’ 그런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이들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캠프가 정말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소 싱거운 느낌으로 마쳤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이틀동안 아주 잘 협조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한사람 한사람이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규칙을 지켜주는 것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단지 표면적으로 우리가 도와주기를 요청한 것과 아이들이 협조를 한 부분이 달랐을 뿐이고, 그것은 불려고 걱정하지 않으면 잘 안보이는 모습이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여유를 주었다. ‘화’를 내면 아이들은 ‘화’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만나면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또다른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만난것이 기쁘고 소중하다.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는에는 시간이 걸린다. 땀질을 해도 다시 터지는게 마음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따뜻하게 지속적으로 보살펴주면 그 경험을 통해 자기 상처를 회복할 줄 아는 능력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은 큰 그릇으로 성장해 간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부적응 행동은 심리적 방황의 또 다른 표현이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내가 못보는 나의 희망을 어른들이 먼저 보고 그것을 나에게 비추어 줄 때 일어난다. 비록 그것이 크고 거창한 건 아니지만 어른들이 그런 아이로 봐주면 아이들은 그걸 밀친 삼아 자기의 삶을 가꾸어 갈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성장의 힘이 있다.



# 아바타를 가르쳐 볼까?

-부·울·경 협약 초등학교 1~3년 사이버가정학습 수학과 콘텐츠-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박상섭

## 1. 여는 마당

교육 현장에서는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고자 교육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보화의 인프라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갖추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사이버가정학습이 확대되어 학습용 콘텐츠 개발과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사이버가정학습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5개 교과와 기본학습 콘텐츠에 이어 보충 및 심화학습용 콘텐츠를 부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개발기술의 변화에 힘입어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의 내용적 접근이나 기술적인 부분 등이 수요자의 요구에는 못 미치거나 적지 않은 오류와 한계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학년이나 교과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별 학습용 콘텐츠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3학년용 콘텐츠가 없어 여기에 따른 콘텐츠 개발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 자체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의 상호간 공유도 원활하지 못하고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의 우려가 따르고 있다.

이에 본원에서는 부산교육연구정보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경남교육연구정보원 3기관의 교육연구정보 공유 협약을 주선하여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서비스 내실화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세 기관은 서비스되지 않는 초등학교 1~3학년용 콘텐츠를 개발·제공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세 기관의 인적자원 교류와 공동 투자로 콘텐츠 품질향상과 투자예산 절감의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학습자의 흥미를 중시하고 학습의 동기를 유지시키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교실수업과 연계한 학습자의 수준별 자율학습을 강조하고, 비고츠키의 스캐폴딩 도입으로 지속적인 학습부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 2. 무엇을 어떻게 개발했나요?

○ 개발 :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6종 120차시

교과	종	영역	학습분량	비고
수학	6	7	120차시	3개 학년, 1, 2학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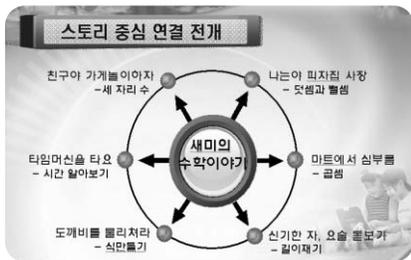
○ 기관별 역할 분담

	부 산	울 산	경 남
역할	제작단계 검토 및 진행	설계단계 검토 및 진행	총 기획 및 진행
개발영역	3학년	1학년	2학년
분량	40차시	40차시	40차시

### 3. 어떤 점이 특색 있나요?

먼저 기존의 서비스 되고 있는 콘텐츠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필수적이었다. 이에 아이디어 구안을 위하여 기획 및 스토리보드 설계를 공모하였고, 그 결과 설계팀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기획 단계부터 현재의 서비스를 뛰어 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쳐났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게임형, 어드벤처형 에듀테인먼트 및 교수가능 에이전트형(Teachable Agent)의 도입으로 학습의 재미와 지속력을 높이며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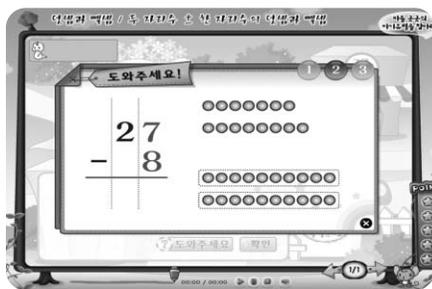
#### ■ “또 공부야?”에서 “백설공주를 어떻게 구하지?”



캐릭터를 중심으로 학기단위로 연속되는 스토리 구성으로 다양한 사건과 수학적 학습요소를 접목시켜 기존 사이버가정학습의 차시별 단절감에서 오는 학습지속력 저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 학습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궁금증을 유발함으로 저학년 학습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학습의 흥미와 다음 차시 학습으로의 동기부여를 꾀하였다.

#### ■ 수준별 오답 스킵폴딩(3단계) 제공

학습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정답 위주의 피드백만 제공되던 기존의 가정학습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학습자의 수준에 최적화된 단계별 오답 스킵폴딩을 구성하여 적용하였다. 이로써 상위 학습자는 물론 하위 학습자의 경우도 자신의 학습 오류를 바르게 인지하고 수정하는 맞춤형 피드백을 구성하였다.



[2단계] 구체물활용 피드백



[3단계]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 피드백

## ■ Teachable Agent 전국 최초 도입



[ TA형 콘텐츠의 실제]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컴퓨터를 상대로 다시 가르치는 튜터와 튜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Teachable Agent의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전국 최초 실현함으로써 산지식을 추구하는 신개념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이 보다 정교화되고 자기 것으로 최적화되는 귀한 학습 경험을 맞출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제시되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따라가던 수동적인 학습자의 학습태도를 학습권을 학습자에게 넘김으로 능동적인 참여태도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효율적인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 4. 어디에서 볼 수 있나?

사이버가정학습 새미학습 메뉴의 초등 1, 2, 3학년의 수학과 '학습' 버튼을 찾으세요.

## 5. 맺음 마당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습내용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므로 일상생활의 학습 맥락에서 구현되는 교실 수업의 보충·보완의 심화수준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함으로 기존 사이버 가정학습에서 소외되어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부산, 울산, 경남교육정보원 3기관에 서의 공동개발 및 서비스를 통해 교실수업과 연계한 학습자의 수준별 자율학습을 지원하고 정규수업을 지원·보완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학습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므로 학생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더불어 농산어촌지역,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시키는 데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장 오창호



■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으로 소외의 벽을 허물고

2007학년도에 ‘방과후학교 자율시범학교’ 과제를 지정받아, 주어진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긍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받아들여, 학생을 중심에 둔 계획과 실천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상시평가체제로 연구과정을 공개, 공유하는 등 과제인식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개설 유형을 ‘특기적성교육, 보육교실, 외부기관 프로그램, 토요일업일 프로그램, 방학 중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고, 장기간 모집 공고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한편 ‘교사 - 강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업연구와 공개 협의 등으로 방과후학교 강좌 수업의 질을 꾸준히 향상함으로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되찾아 주었다.



방과후학교 시범운영 설명회 모습



시범운영 합동보고회 공연 모습

## ■ 배움과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

배움과 돌봄과 나눔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제대로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선생님들의 질 높은 돌봄을 위한 노력 또한 제대로 하고 있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개인연구과 집단협의를 매진하고, 다양한 연수활동과 동호회 활동에 열성을 다해 온 결과로 2007. 학교평가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단계별 받아쓰기 프로그램 및 씨줄날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삼성어린이들은 배움의 눈빛을 반짝이고 있는 것이다.

배움과 돌봄을 통해 익힌 재주는 사제모 동행의 나눔 실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구내 천주교 노인 복지시설인 '무아의 집' 과 자매결연을 하여 청소, 목욕봉사 및 합창 합주 공연 등으로 봉사활동의 보람을 즐기고 있다. 특히 자생 조직인 '삼성 학부모 봉사단'의 활동이 두드러져 2007. 봉사활동 최우수학교(교육감 표창)로 선정되었다.



무아의 집 자매결연 모습



어버이날 봉사활동 모습

## ■ 체험중심의 문화유산 사랑교육

문화유산 사랑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오던 중 2008학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지정 문화유산교육 연구학교 과제를 받아 보다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해졌다.

### • 교과 학습을 통한 문화유산 이해와 관심 고조

연구학교 과제를 교육과정 운영의 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각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유산교육 요소를 유목화하고 상세



교과관련 지도

화하여 교과학습 시간에 중점 지도함으로써 보다 손쉬운 목표도달을 꾀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전통과 일을 이어가는 문화유산 탐구활동**

교과 학습을 통해 익힌 문화유산에 대하여 체험적인 탐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더욱 증진하고 탐구와 애호의 의지를 높이고 있다.

학급별 문화유적 탐구대회와 전교생 대상 문화유산탐구 퀴즈올림피아드가 그 대표적인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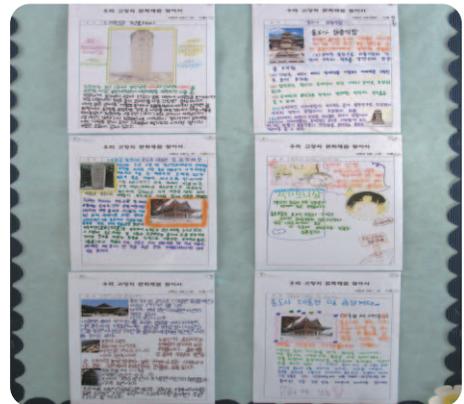
문화유적 탐구대회 참가 모습



삼성 퀴즈 올림피아드-삼성벨

**• 문화유산 사랑 학년·학급 특색교육활동 전개**

교육과정 속에서 학습한 문화유산 교육을 체험활동과 조화롭게 추진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문화유산 체험활동을 학년별 주제 탐구와 학급별 특색 교육활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문화유산관련 학급환경자료

**•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유산 사랑 교육**

학교-가정-지역이 연계된 문화유산 탐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삼성동사무소와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초·중학생과 주민을 대상으

로 두차례(1차-경주 고적탐방 / 2차 -김해 가야문화탐방)에 걸쳐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08학년도에는 학교와 동사무소가 운번제로 주관하여 횡수와 참가인원을 늘리고 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화할 계획이다.



문화유산탐방활동

### ■ 큰 꿈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60년에 가까운 학교 역사 속에 건물 내외부의 노후 등 교육여건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교육공동체가 손잡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정성껏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삼성초등학교의 참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큰 꿈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라는 교육 표방을 내걸고 50여 삼성교육 종사자들은 1천여 학생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오늘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울림합창단 모습



한울림합창단 도대회 참가 모습-KBS 창원홀



## 차를 나누는 마음으로

창원 화양초등학교 교감 김 차 숙

종이 한 장의 이름으로 열한 번째 근무할 학교는 인근 지역이긴 하지만 나에게겐 생소한 곳이다. 양지바른 아담한 교정에 잔디가 뿌리를 채 내리지도 않은 낮은 언덕과 어디선가 본 듯한 정겨운 오두막 한 채까지 학교 전체가 예쁜 공원을 연상케 하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창문을 넘어온 2월말의 햇살이 따스하게 다가왔으나 긴장된 탓인지 학생 수에 비해 커다란 운동장이 더 크게 느껴졌다. 함께 온 일행들과 이곳의 첫인상에 기분 좋은 동감을 함께하며 감사한 마음이 드는 순간 함께 연수를 받았는데 먼저 입지에 도착한 미안함도 마음 한 구석에 파고들었다.

집에서 출발하면 버스를 3번 바꿔 타고 배를 타고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고 마지막에는 택시를 타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었던 첫 발령지를 올해 학년말 방학 끝 무렵 직접 운전을 하여 혼자서 다녀왔다. 교직의 첫발을 내딛었던 그 곳에서의 초심을 잃지않고 되새겨 새로이 주어질 역할을 준비하는 나의 작은 마음이기도 했다. 과연 내가 잘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새 옷을 처음 입고 나들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 줄 것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내심 걱정이 앞섰다.

학교의 가장 어른이 근무하는 방에서 따뜻한 차잔들이 일행의 신 켤레 수만큼 나왔다. 차를 마시면서도 마음은 '어쩌면 누군가가 정성스레 마련해준 이 차를 마시는 마음으로 새로운 역할에 충실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고 있었다.

새 학년이 되면 함께 나누어 마실 차와 차잔을 준비하여 새로운 멤버와의 우의를 다지면서 크고 작은 조직들이 가동되는 학교에서의 우리들만이 나누는 진풍경이다. 이런 의식은 차를 마시고 함께하며 마음의 순수함, 깨끗함, 따뜻함, 공손함을 잊지 않고자 하는 작은 나눔이다. 차를 소개하는 책(푸른 화두를 마시다)속에서 말하는 우리 고유의 차 문화에 담긴 정신을 포방하는 덕목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약속의 장이기도 한 것이다. 새로운 곳에서도 차 나눔에서 배운 사심이 없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업무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주변으로부터 불만의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뜻해야 차의 향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듯이 인간적으로 따뜻함을 갖추어야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낼 수 있음은 물론, 구성원들에게 실득보다는 충분한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 즐거운 사무실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들여 우린 차는 바로 마시고 오래 두지 아니하듯이 서두르지도 미루지도 않는 공손함이 있어야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소 엉뚱한 의견조차도 깊이 경청하고 반영해야 된다는 이치일 것이다.

여기에 따뜻한 차를 행복한 마음으로 마시게 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한 가지 더 첨가하고 싶다. 데보라 노빌은 '감사의 힘' 책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위대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전해주고 있다. 삶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더 많으며 우리의 상상과 예

상을 뒤엎는 결과를 자주 만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의견차나 언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무겁게 하기도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에는 고마워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축하의 말과 함께 포용과 조율을 겸비한 사람이 되라는 선배님의 조언, 선생님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달라는 아름다운 친구의 메시지, 예순 다섯 가지의 열강 속에 쏟아진 교감의 십계명, 바람직한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 등을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너는 책속의 문장이 아닌 살아있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싶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전문성이 열려질 수 있는 우려를 날카롭게 지적해주신 선배 교장선생님의 금언, 늘 긍정적인 사고로 내 인생의 주인공임을 알기 쉬운 사례로 설득력 있게 일깨워주시던 퇴직 교장선생님, 인간적이면서도 야무지고 실력있는 관리자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남쪽 섬의 선배님, 부족함을 조용하게 일깨워주고 모자람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던 많은 어른들, 부족한 선배를 지지하고 말없이 따라준 아름다운 후배들이 있었기에 무사히 오늘까지 교직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고 싶다. 자리의 니르바나즘에 빠지지 않고 신학기의 차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또 한편의 행복한 나의 자화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





## 지리산 자연휴양림을 다녀와서

마산 삼계중학교 학부모 배은숙

정보나 문화면에서 덜 누리고 산다는 초조함에 주말이면 누울자리만 찾는 남편을 설득하여 조금이나마 건문을 넓히기 위해 사회 교과서와 연계된 박물관과 사찰을 찾고, 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에도 가고, 가까운 창원까지는 그나마 미슬관을 찾기도 했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부터는 주말에도 이래저래 시간이 나질 않아 방학이 나, 휴가, 계절이 바뀔 때가 되어야 그나마 자연에라도 나갈 수 있었다.

지난 방학 때 우리 가족은 모처럼 지리산 자연휴양림으로 여행을 떠났다. 연일 계속 된 슬자리와, 과중한 업무에 피곤함을 못 이겨, 누울 곳만 찾던 남편도 미안하고 눈치가 보이던지 아침겸 점심을 먹고 난 후 작은 가방에 칫솔, 치약, 수건을 돌돌 말아 챙기고 가스 벨브랑 보일러도 점검을 한 후 떠났다.

아직은 찬바람이 위세를 부리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마음이 편안해서일까? 마음이 편안해서일까? 속도 메스껍지 않다. 멀리 우리 마을 뒷산에는 흰눈 흔적이 남아있는데 마음만은 벌써 진달래가 뒷산 언저리를 온통 분홍빛으로 감싸는 봄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정신을 쏟지는 않았는지? 소중한건 놓치지 않았는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생각을 바르게 읽지 않고, 아이의 시간을 내 계획대로 만들어 가고, 엄마의 틀에 가두어 숨털 보송보송한 아이를 마음 편히 뛰어놀지도 못하게 가려린 어깨위에 많은 짐을 지어 주지는 않았는지? 또 나는 엄마로서 제대로 성장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걱정스런 마음이 든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친 건 좋지 않다. 조화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데, 그것 또한 부모 욕심일까? 이런 저런 생각에 큰 아이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이 시리다

멀리 차창 밖으로 함안에서 겨울동 수박 축제가 열리는지 에드벌룬에 방승국 차량도 보인다. 여기서 노래자랑도 할 모양이다. 여기저기 수박이 깨어져서 널브러진 흔적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초등학생 쯤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방승에 나갈 건지 놀이 준비를 하고 있다. 시댁에도 수박 농사를 하는데, 남편은 아주 어릴적부터 노는 것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시골의 전원보다는 그 고달픔에 퇴직을 하고도 농사일은 하지 않겠다고 한다. 나는 시골 촌사람이라 흠집 짓고 물 한 모금에 싹 돌아나는 텃밭 일구고, 벗짚 타는 냄새 맡으며 단순한 생활에 몸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이웃들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

함천에서 고기를 먹고 지리산 쪽으로 향하니 산 중턱까지 제법 눈이 쌓였다. 초원의 집 6권에서는 눈이 많이 와서 로라가 화가 났다고 했는데, 로라네 마을이랑 우리 마을이랑 반반씩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도 잠시 해 본다. 우리 집 둘째 딸이 아빠를 즐라 초원의 집을 한 질 샀는데, 나도 가끔 심심하면 뒤적일 때가 있다. 책 목심이 유난히 많은 아이다

겨울해는 짧아서인지 금방 어두워졌다. 인가도 드문드문 산 아래 민박집이 두어 채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사용했던 흔적만이 여기저기 머리카락이며, 희뿌연 먼지가 우리 가족을 맞이했다. 보일러 온도를 높이고 낮에 먹다 남은 고기 몇 점과 냉동실에서 꺼내 온 떡으로 허기를 채웠다. 9시뉴스와 드라마 '겨울새'를 보고 자리에 누웠으나 쉽게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오래도록 정성을 들인 자녀교육이 자기도 모르는 일로 인하여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며, 잘 한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자식 가진 부모는 늘 마음이 긴장돼 있기 마련이라며 얼마 전 작은 아이 학교 교감 선생님의 글을 읽고 한동안 멍해져 옴을 느꼈다. 지금 나의 처지도 그렇다. 잘 할려고 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는지 가끔 불안하기도 하다. '조화로운 삶'을 늘 염두에 두고 살려고 한다.

지금 큰 아이에게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고등학교 선택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 걱정이 된다. 좀 더 욕심을 내어보면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배려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도 관심 가지는 따뜻한 어른으로 자라 주었으면 한다.

낮선 환경에 잠을 설쳤나? 아침햇살이 방안 가득 들어왔다. 솟아오르는 붉은 해를 보고 싶었는데, 아침 찬거리를 살 겸 읍내 시장으로 나갔다. 사람 사는 냄새도 맡고 살아있는 인정을 느끼고 싶었다. 참 오랜만에 느끼는 진솔하고 푸근한 정겨움이다.

나도 반쯤은 도시사람인가 은빛 멸치와 흥함이 물이 좋은 것이 반갑다. 방앗간에서 떡을 사다 끓여 배를 채우고, 자연 휴양림으로 발길을 돌렸다. 만년설이 부럽지 않을 만큼 은 산이 새하얗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불솜처럼 부드러운 곳을 지날 때의 그 설렘이란... 아이들은 눈썰매를 타면서 두께가 얇은 비료푸대가 마찰이 적어, 속도가 빠르니 폼이 나질 않는다고 투정을 부린다.

평상에 가서 눈도 좀 털고 오자 하니 화장실이 급했는지 순순히 따라온다. 눈에다가 물엿을 섞으면 아이스크림이 된다고 물엿을 내어 놓으란다. 이제 어지간히 눈 모양이다.

긴 막대기로 창문을 열고 내민다. 바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까르르거린다. 며칠동안 발이 따끔거리고 간지러웠다. 몇 해 전 전북 고창의 구름이 내려앉은 듯한 하얀 메밀밭과 장작 구들 황토방을 다녀왔는데, 4월의 청보리밭을 가보고 싶다.

건강하게 커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늘 내 편이 되어 넉넉하게 응원해 주는 남편이 있어서 행복한 여행이었다.





## 국사봉을 다녀와서

진주여중 학부모 조 정 현

뭔가 답답함이 지워지지 않고 꼭 막힌듯한 가슴이 날 짓눌러 어젠 무작정 친구 둘과 함께 산길을 오르기로 하였다.

6시 30분에 만나기로 하였는데 내가 먼저 도착하여 기다렸다.

바쁜 현실속에 짓눌려진 나의 머리가 터질듯한 통증으로 날 괴롭혔다. 뭔가 나의 욕심대로 되지 않는 나의 현실에 왠지 모를 분노가 느껴졌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것일까 나의 정체성에 중년의 회의감이 밀려들었다.

이유고 친구가 오고 우린 함께 산길을 걸었다.

한발 두발 처진 어깨에 삶의 짓눌림을 싣고 오르려니 어깨가 묵직하고 빠근하여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그런데 한고개 오르니 불어주는 시원한 바람

그 누가 나의 얘기에 귀 기울여 준 것처럼 그 누가 날 안아 준 것처럼 왠지 날 평안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혼자 이런 저런 잡념속에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 내어 정리하고 있었다.

가다가 고함도 지르고 그냥 돌팔매질도 하고 나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고 어둠이 서서히 오는 이 산길에 친구들이 있던 생각도 잊은 채 난 그렇게 상상의 세계에서 혼자 허우적 거리고 있었다.

어느새 다다른 정상! 친구가 날 위해 빌어 주었다.

고마워

이런 산의 위대함이여 이런 산꾼의 의리여

그래 우린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 느낄수 있다.

그래 난 이제 산길을 걸음으로 모든 것을 나 스스로 정리할수 있었다.

그래 알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님을

그래 알고 보면 나의 속이 너무 좁은 탓임을

그래 알고 보면 나의 욕심이 너무 커 버린 탓임을

내려 오는 발걸음은 너무 가벼웠다.

어둠도 무섭지가 않았다.

그저 산이 날 위로 해 주는 느낌만 느낀 채

난 또 다시 현실로 돌아 오고 있었다.

이런 산을 내가 왜 안 좋아 할수 있을까.

더욱 더 산을 좋아하리라.

그리고 더욱더 찾으리라.

그리고 모두 말기리라.



## 그 리 움

김해대청고등학교 학생 윤우상

언젠가 일요일 오후 점심밥을 먹다가 실수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순간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정정하실 것만 같던 나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단정한 모습으로 아침에 나가셨다 옛 친구들을 만나시고 저녁에 들어오시곤 했다. 나는 언제나 이런 할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이 당연하다고 느꼈었고 얼마 후 할아버지께서는 암 말기라는 관정을 받으셨다. 그때 할아버지는 나의 그리움이 아니었다. 당신께서 식사를 하시다 젓가락을 떨어뜨리셨을 때 그는 내가 소중히 여겨야 했을 그리움이 되었다.

젓가락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다. 문득 그리움에 대한 시상이 떠올라 눈을 감으니 그 내용이 잘 풀어지지 않았다. 함축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내 능력이 아직 모자라나보다. 소월 시인이자면 그리움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 날 난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하얀 백지를 꺼냈다. 그러곤 멈춤 없이 글적여보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뿜어 나오는 회상. 모든 집집의 컴퓨터가 그렇듯이, 사람들 또한 모두 다른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그 메모리는 기억과 추억이다. 기억과 추억은 확연히 다르다. 한번 받아들인 감각을 뇌의 어딘가에 저장하는 것이 기억이라면 우리 마음 속에 저장하는 것은 추억이다. 그리하여 나는 추억 속에서 자주 그리움을 발견하곤 한다. 연필을 잡으면 연필에 대한 그리움이, 빵을 먹으면 빵에 대한 그리움이, 사진을 보면 그 속의 그리움이 나를 휩쓴다.

누군가 그리움은 끝없는 기다림이라 했던가. 봄과 가을이 지나고 무수한 시간이 흘러도 그리워하는 순간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내면적 사랑의 또 다른 단어이다. 또 그리움은 고통이다. 옛 우정을, 옛 사랑을, 또 옛 향수를 그리워 하다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참아야 하니까.

아, 나의 옛날... 그 날의 친구들이여, 사람들이여. 나는 지금도 그들을 그리워하는데 과연 그들의 추억 속에 나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을 런지. 최소한 그들의 딱딱한 기억으로만은 남고 싶지 않다. 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미친 듯이 그리운 추억이 없진 않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품처럼 터져 나오는 아련함.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걸어야했던 시골길.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는지  
의심조차 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의심이라기보다  
그 무언가...아,  
뻥고 싶은 손.

그저 있는 그대로 이 시에 나의 그리움을 넣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의 그리움을 채우기 시작하더니 시가 완성되자 그림기보다는 추억이 있어 행복하다. 추억을 적을 수 있어 행복하다.

시간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일이면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과거의 그림자는 내 속의 염증이 되는 것이다. 그리움을 슬픔의 대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리움이 진정 행복이 되기 위해 내가 숨쉬는 현재의 것. 즉,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더 격렬히 사랑해보자. 지나가도 아름다운 그리움을 만들어보자.





## 뒤늦은 깨달음

거제여자고등학교 학생 박아람

어릴 때부터 저는 유난히 아빠를 잘 따랐습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 아빠 뒤편 졸졸 쫓아다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엄마보다는 아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아빠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이유는 아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뒤부터인 것 같습니다. 아빠와 이야기를 하면 짜증부터 났습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신 어느 날, 아빠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냐” 라고 물으시면 “내가 나쁜 짓이라도 할까봐!” 이러면서 화를 내었고, 일찍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공부해야 하는데, 망치면 아빠가 책임 질 거가?” 하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아빠를 힘들게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는 날, 교과 우수상과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그 날 기분이 너무 좋아 친구들과 논 후 아빠에게 가서 “아빠! 나, 이것 봐! 상 두 개나 받았다!” 하면서 칭찬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래.”라는 싸늘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빠의 이런 반응이 너무 미워서 그 날 받은 상들과 졸업장을 전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불로 온 몸을 덮은 채 잠 많이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해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날, 아빠는 학생이 무슨 일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허락도 있고, 용돈도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 달 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또 한 번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도 아빠는 저에게 ‘힘들지 않느냐, 괜찮느냐’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아르바이트를 다 그만둔 후 그 해 8월에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 지금 아버지께서 영안실에 계시거든요.”

“예? 영안실요?”

“예.”

갑작스런 영안실이란 말에 영안실이 뭐하는 곳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황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 영안실로 갔고, 그곳에서 한 쪽이 검게 그을려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발가락이 나랑 닮은 것을 보니 우리 아빠가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것은 전기 감전 때문이었습니다. 수해로 아파트 지하실에서 젖은 기구를 옮기는 이웃을 돕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된 것처럼 오히려 남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에 있는 큰 고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 지?”

고모는 저의 이런 저런 상황을 물어보시더니

“너, 상 받았을 때마다 아빠께서 얼마나 너에 대해 자랑을 했는지 몰라. 졸업할 때 상을 두 개나 받고, 축제도 나가고. 매년 글짓기 할 때마다 장려상만 탔다고 울었다며? 아빠는 그런 너의 모습도 얼마나 대견스러워 했는지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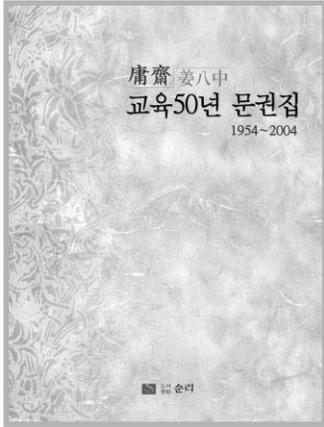
장례식 때 작은 고모부도 아빠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딸이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효도를 한다고, 우리 딸 너무 좋다고,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바보가 또 있을까요? 이런 아빠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 집 가난하게 만든 사람이라며 매일 속으로 미워만 했던 나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오히려 아빠는 저희 마음과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마음의 부지였는데.....

다시 한번만 아빠가 내 눈앞에 서 있어 준다면 잘못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빠는 지금도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넘어질까 조바심 내며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빠 저는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한다고 힘들지만 이제 아빠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저에 대한 사랑을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엄마와 동생들 많이 사랑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빠 하늘 위에서 지켜보시고 칭찬 많이 해 주실 거죠?  
사랑합니다. 아빠.





## 庸齋 姜八中 교육 50년 문권집(1954-2004)

- 庸齋 姜八中 교육 50년 문권집은 경남교육계의 巨木이었던 용재선생께서 50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 한 후 자신의 삶을 정리하여 출판한 책으로 이 책을 읽으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국가교육공무원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를 깨닫게 된다.

용재선생은 '사용한 세수대야를 씻어두라'는 말을 家訓으로 삼아 항상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교육을 해 오셨으며, 가정과 직장을 일체화 하고 학교를 교회처럼 생각하는 등 교직에 열중하셨다.

이 책에는 용재 강팔중선생의 삶의 체취가 녹아있다.

한 예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차가 절실히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차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지금도 자가용 없이 생활하고 계시며,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의 시신을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하기로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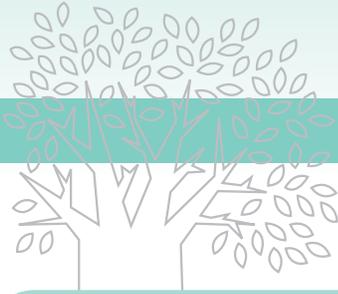
보통 사람과 다른 삶을 살면서 교직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유별났던 용재선생이 걸어온 삶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교직을 첫 출발하는 교사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며, 교직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들은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 뿐 아니라 한국 교육사의 내면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용재 선생을 존경하는 어떤 분은 이 책을 20권 구입하여 아끼는 후배와 아들에게 한 권씩 주었는데 많은 분들이 책의 구입을 문의해 온다고도 한다.

개인이 구입하여 읽는 것도 좋지만 각급 학교와 교원 양성 연수를 맡고 있는 기관에서는 장학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다.

〈 구입 문의 : 011-9534-4724, 조수강 〉



## 5백년 명문가, 지속경영의 비밀

최효찬 지음 - 서울 : 위즈덤하우스 <2008. 1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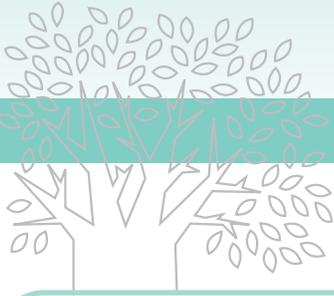
-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과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을 쓴 최효찬씨의 명문가 시리즈 세 번째 책. 이번에는 500년 명문가의 가문 경영에서 현대 경영학 지침을 이끌어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종가 10곳을 직접 방문해 취재했다. 모성형 리더십을 실천한 청계 김진, 청백리 정신과 자긍심을 중시한 백사 이항복, 변화 경영을 주도한 고성이씨 부인, 창조를 위해 거부당하는 고통을 견뎌던 서계 방세당이 그들이다.



## 길어진 인생을 사는 기술

슈테판 블만 지음; 유영미 옮김 - 서울 : 웅진지식하우스 <2008. 1월> 발행

-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수명이 길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길어진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긴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준다. 철학을 전공한 지은이는 '길어진 인생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원이자 잠재력' 이라고 말한다.



## 책에 취해 놀다

김화성 - 서울 : 생각의 나무 <2007. 5월> 발행

- 저자는 특유의 구수한 입말로 마음의 독을 씻어줄 책들을 소개하며, 그 향기로운 희망에 함께 취하기를 제안한다. 고전에서부터 성경, 시, 에세이, 사회과학서, 인문과학서, 처세서, 실용서까지 다양한 텍스트들을 넘나들며 인용하고 있다. 갖가지 재료들을 절묘하게 배열하여 하나로 주제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한 책에서 다른 책으로 넘어갈 때마다 더욱 깊고 풍부해진 내용과 분명한 주제를 만날 수 있다.

웃고 즐기면서 벽적지근한 수다를 늘어놓지만, 그가 풀어내는 이야기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모순에 대한 반성과 세상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또한 그동안 스포츠 전문기자로 일하면서 보고 들었던 생생한 경험들을 다양한 스포츠 관련 책들과 엮어내며, 스포츠 안에 담겨 있는 인생의 의미와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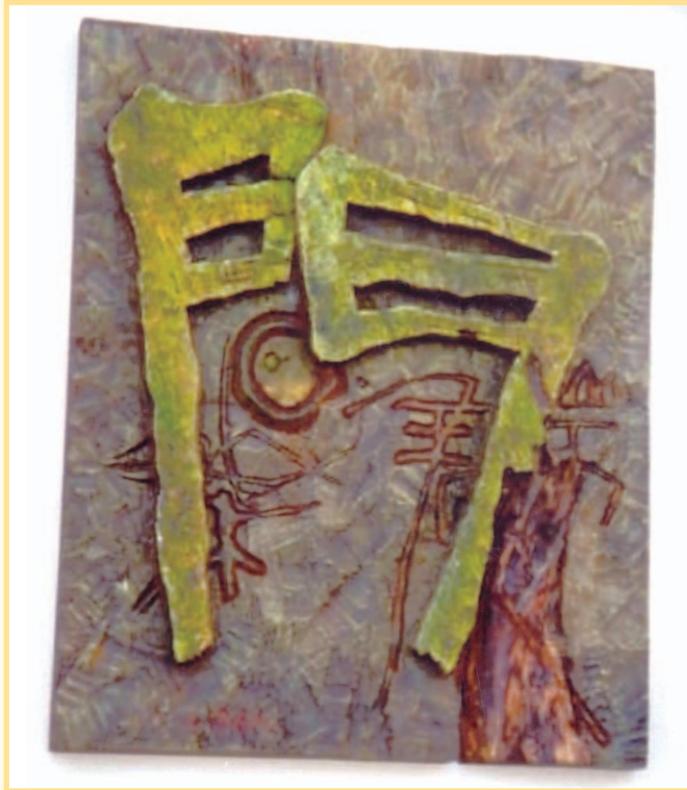


## 토론하는 교실

여희숙 지음 - 서울 : 노브16 <2007. 6월> 발행

- 독서와 토론을 학급 경영에 접목시켜 온 저자가 토론 지도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동료 교사들에게 『책 읽는 교실』에 이어 풀어놓은 토론 지도 길잡이다. 마치 동료 교사에게 자신의 교실 이야기를 들려주듯 편안하게 쓰인 이 책은, 토론의 재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아이들의 글에서부터 토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토론 대회 후 쓴 글, 저자 자신이 학부모의 이해와 도움을 구할 때 썼던 알림장의 쪽지글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 또한 토론 지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에서부터 토론 수업의 실제인 토론 수업 따라하기와 학급에서 토론하기 좋은 안건들이 수록되어 있어 학급 경영에 적용해 볼 수 있다.

## 교원지상갤러리



문(문) - 瑞氣集門(서기집문)

작품해설 : 상서로운 기운이 집 앞에 모인다.

어린 시절 시골이 고향인 친구 집에 놀러가서 보았던 조금 기울어진 허름한 문이 생각납니다. 그 문으로 집주인과 다니러온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지요. 저마다의 생각들을 품고서 말입니다.

이제 지천명(知天命)의 문을 들어서고 보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늦었지만 웅졸했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 누구라도 편안히 드나들 수 있는 문의 의미를 새겨봅니다.



- 마산삼진중학교사
- (사)한국서각협회회원
- (한)들무새각연회장
- 대한민국 서예회호대회 특선(행사)
- 대한민국 서예문인화대전 특선, 특별상
- 대한민국 서가대전 다수 입상
- 대우갤러리 초대전시회 출품 외 전시회 수회 출품

한 병 철

「**학생**이 **행복**한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이 만들어 갑니다.」

<http://www.gne.go.kr>